퍼블릭 클라우드 vs 프라이빗 클라우드

① 관리 편의성 (Manageability)

항목	퍼블릭 클라우드 (예: AWS, Azure)	프라이빗 클라우드 (온프레미스)
K8s 관리	EKS/GKE 같은 매니지드 K8s 서비스 제 공. 업그레이드, 백업, 모니터링 기본 제공	kubeadm, RKE 등을 통한 수동 설치 필 요. 유지보수 직접 수행
노드 관리	Auto Scaling Group, Spot Instances 로 자동 관리 가능	물리 서버 또는 VM 직접 관리. 확장 시 하 드웨어 고려 필요
스토리지	S3/Elastic File System(EFS) 등 연동 쉬 움	MinIO/Ceph 설치 필요. 성능 튜닝, 장애 대응도 직접 해야 함
배포 및 자동화	Terraform, Helm, Argo CD 등 클라우드 연동 도구와 통합 쉬움	동일 도구는 사용 가능하나, 클라우드 연동 기능은 별도 설정 필요
종합 평가	● 관리 편의성 우수 (모듈화/자동화 용이)	● 설정 복잡도 높고 유지비용 발생

🔎 요약: 퍼블릭 클라우드는 관리에 대한 추상화 레벨이 높아 운영 부담이 적고, IaC 도구와 통합도 잘됨

◆ 퍼블릭 클라우드 설계 방향

- Amazon EKS: 매니지드 K8s 클러스터로 제어판 관리 생략
- RDS for PostgreSQL: DB 운영 자동화 (백업, 패치, 장애 조치)
- \$3: 확장성 높은 객체 스토리지 사용
- Terraform + Argo CD: IaC 및 GitOps 기반 관리 자동화
- Cluster Autoscaler + HPA: 자동 리소스 확장

뛝 설계 이유

- 운영 부담 최소화: 제어판 자동 관리, 자동 패치, 백업 내장
- 표준화된 관리: IaC & GitOps 조합으로 일관된 환경 유지
- 실시간 대응: Auto Scaling 및 서비스 이중화로 가용성 향상

◆ 프라이빗 클라우드 설계 방향

- Kubeadm or RKE로 K8s 직접 설치: Master/Worker 수동 구성
- HAProxy + Keepalived: API 서버 로드밸런싱
- Ceph 또는 MinIO: 스토리지 직접 구성
- PostgreSQL Replication: 직접 구성하여 고가용성 확보
- Ansible + Helm: 자동화와 배포 편의성 확보

🥟 설계 이유

- 커스터마이징 유리: 전체 구조에 대한 제어 가능
- 네트워크 구성 및 보안 통제 강화 가능

• 단, 운영 복잡성 증가 → 관리 인력 필요

② 민첩성 (Agility)

항목	퍼블릭 클라우드	프라이빗 클라우드
K8s 클러스터 생성 속도	수 분 이내 (eksctl, gcloud 등)	직접 설치 및 구성 → 수시간 소요
CI/CD 파이프라인 연동	GitHub Actions + Argo CD, Jenkins 연동 쉬 움	내부 네트워크 설정 필요. 인증/연동 복잡
오토스케일링	Cluster Autoscaler / HPA / VPA 지원	리소스 모니터링, 노드 증설까지 수동 구성
환경 분리 (Dev/Staging/Prod)	Namespace 및 여러 EKS 클러스터 구성 쉬움	클러스터 분리는 인프라, 자원 측면에서 부 담 큼
배포 속도	Fast - GitOps 기반으로 빠르게 반영	중간에 인증 이슈, 인프라 한계로 지연 가 능성
종합 평가	● 빠른 구축과 반복 배포에 유리	● 민첩성 확보 위해 많은 선작업 필요

▶ 요약: 빠른 구축과 확장, 자동화 측면에서 퍼블릭 클라우드가 민첩성 우위

◆ 퍼블릭 클라우드 설계 방향

- eksctl로 수분 내 K8s 생성
- GitHub Actions + Argo CD: 코드 변경 → 자동 배포
- Dev / Staging / Prod 분리: Namespace 또는 별도 EKS 클러스터

뛝 설계 이유

- 개발 주기 단축 (CI/CD 자동화)
- 실시간 배포 가능 (GitOps 기반)
- 환경 분리로 품질 유지

◆ 프라이빗 클라우드 설계 방향

- CI/CD 도구 직접 호스팅: Jenkins, GitLab CI 등
- 개발/운영 분리 클러스터 또는 네임스페이스 구성
- 배포 자동화 툴 사용: Argo CD or Flux

잘 설계 이유

- 내부망에서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
- 보안 통제가 필요한 민감 환경에 적합
- 하지만, 초기 셋업 및 배포 자동화에 시간 소요

③ 비용 효율성 (Cost Efficiency)

항목	퍼블릭 클라우드	프라이빗 클라우드
초기 비용	낮음 (사용한 만큼 지불)	높음 (서버/스토리지 직접 구축 필요)
운영 비용	지속적인 과금 존재 (CPU, RAM, 트래픽, 스토리지 등)	유지보수 인력/전력비/하드웨어 감가 상각
오토스케일링	비용 최적화 도구 풍부 (예: Spot Instance)	물리적 한계로 오토스케일링 미흡
CI/CD 등 도구	무료 오픈소스 + 클라우드 리소스	오픈소스만 사용 가능하나 별도 인프라 필요
HA 구성	RDS, S3, ALB 등 고가용 자원 제공 (비용 있음)	직접 구성 가능하지만 인프라 확장 시 비용 증가
종합 평가	○ 초기 저렴하지만 장기 비용 누적 가능	● 초기 고비용, 장기적으로 리스크 분산 가능

🔎 요약: 단기 프로젝트나 PoC는 퍼블릭이 유리, 장기 대규모 서비스는 TCO 비교 필요

◆ 퍼블릭 클라우드 설계 방향

- 모든 리소스 Pay-as-you-go
- **Spot 인스턴스 도입**: 비용 절감
- Managed DB, S3: 유지비 절감

잘 설계 이유

- 초기 구축비 0에 가깝고, 빠르게 PoC 가능
- 사용량 기반 과금 → 소규모나 단기 서비스에 유리
- 예측 가능한 과금이 가능

◆ 프라이빗 클라우드 설계 방향

- 자체 인프라 보유 기반 구축
- Open-source 도구 위주 구성: Ceph, Jenkins, Prometheus 등

뛝 설계 이유

- 대규모 장기 운영 시 총소유비용(TCO) 절감 가능
- 자체 자원 효율화 가능 (Idle 자원 활용 등)
- 초기 비용은 크지만, 장기적 자산으로 전환 가능

④ 보안 (Security)

항목	퍼블릭 클라우드	프라이빗 클라우드
네트워크 보안	VPC, NACL, SG, IAM 등 클라우드 기능으로 세분화 가능	네트워크 정책, 방화벽 구성 직접 수행
인증 및 접근 제어	IAM, OIDC, KMS 등 제공	자체 IDP 또는 Keycloak, HashiCorp Vault 등 구성
데이터 보호	S3, RDS, EBS 등에 암호화 기본 제공	MinIO, PostgreSQL에 암호화 설정 수동 적용
시크릿 관리	AWS Secrets Manager, KMS	자체 구성 필요 (예: sealed-secrets, vault)
감사 로그 및 모니터링	CloudTrail, CloudWatch 등 통합 로그 제 공	ELK 스택 등 별도 로그 시스템 구축 필요

항목	퍼블릭 클라우드	프라이빗 클라우드
종합 평가	● 높은 수준의 기본 보안 + 세분화된 정책	유연성 있지만 구현 복잡성 높음

▶ 요약: 퍼블릭 클라우드는 보안 툴을 기본 제공하지만, 민감 데이터 보호 필요 시 프라이빗도 고려 가치 있음

◆ 퍼블릭 클라우드 설계 방향

- IAM + VPC + SecurityGroup: 권한 세분화 및 네트워크 격리
- Secrets Manager + KMS: 민감 정보 안전 저장
- CloudTrail + GuardDuty: 감사 및 이상 탐지

잘 설계 이유

- 기본 제공 도구만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 확보
- 보안 표준(ISO, SOC, HIPAA 등) 충족 가능
- 외부 노출 리스크 최소화 가능

◆ 프라이빗 클라우드 설계 방향

- Private 네트워크 완전 통제
- Keycloak + Vault + RBAC: 인증 및 시크릿 관리
- NetworkPolicy + Firewall: 내부 트래픽 제어

뛝 설계 이유

-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민감 데이터 직접 보호
- 내부 사용자 위주의 보안 정책 수립 가능
- 보안 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 제어 용이

🧠 결론

평가 항목	퍼블릭 클라우드	프라이빗 클라우드
관리 편의성	● 우수	● 직접 관리 부담 큼
민첩성	● 빠름	● 초기 셋업 느림
비용 효율성	○ 단기 유리	● 초기 투자 큼
보안	● 풍부한 도구	─ 세밀한 통제 가능